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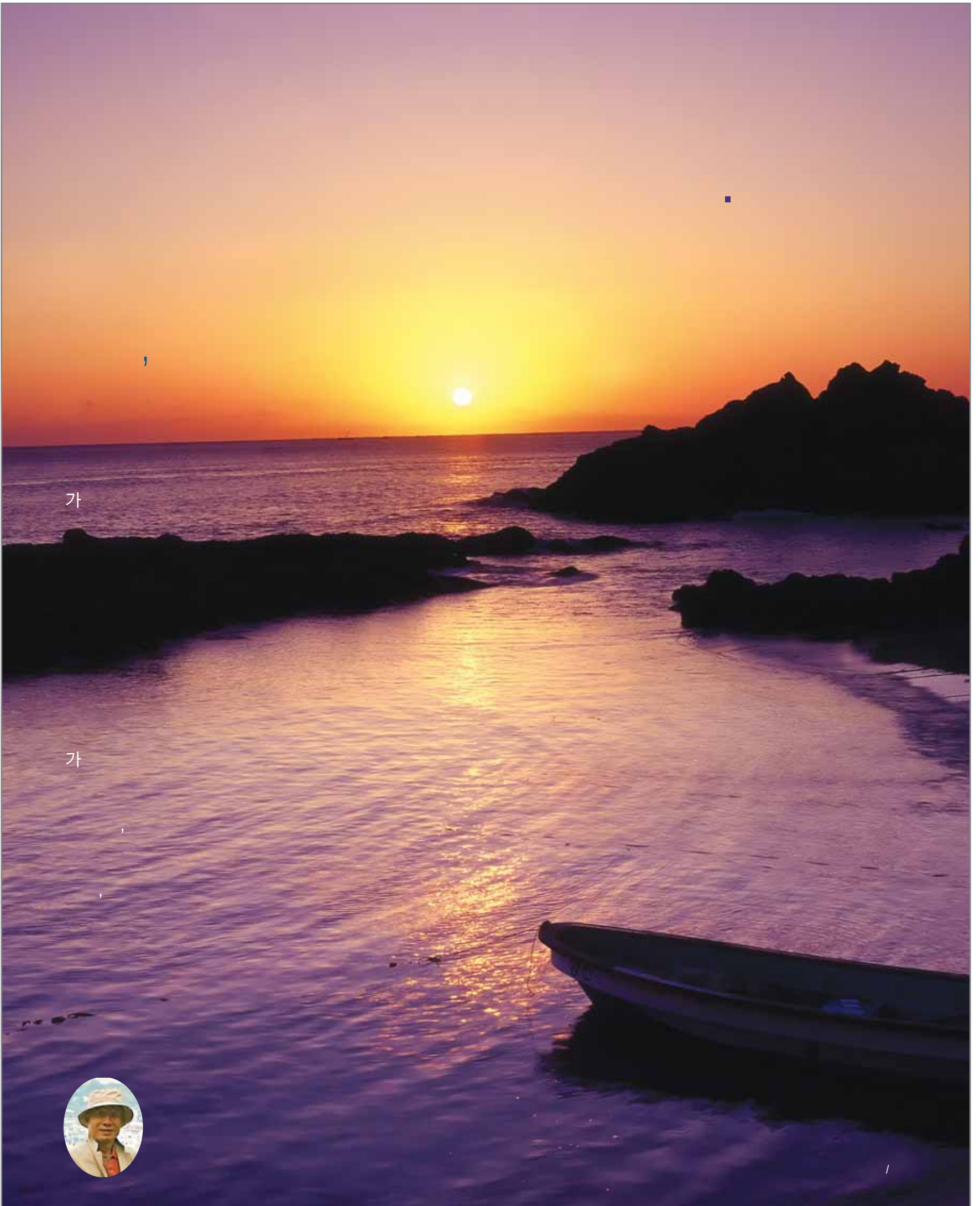
충청북도

의회소식

()360-765

158 |

(043)220-5123 | <http://assem.cb21.net> (2010 1)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인년 새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충청북도가 투자유치 21조 달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등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세종시 건설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지역현안 사안들로 인하여, 도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웠던 한 해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도민 여러분의 응징과 함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

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8대 충청북도의회 도의원 모두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올해는 제8대 충청북도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155만 충북도민을 위해 도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도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손과 발이 되는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도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 여러분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

하고, 도민 여러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실질적이고도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원 모두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충청북도의회 비전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안목을 키움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은 성숙한 시민의식은 물론 지역간, 계층간, 정파간 가져올 수 있는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배려와 화합으로 승화함으로써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155만 충북도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북의 미래를 위해 화합과 조화를 만들어 가는 의회의 모습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인년 새해는 우리 충북이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뜻 깊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힘을 한곳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8대 충청북도의회 도의원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 여러분의 깊은 신뢰와 사랑과 함께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 도민 여러분께 희망과 행복의 전령사로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 1 1

155

하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 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표시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 요구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자치단체 소관업무 등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43-220-5151

하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우편민원
: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로 158(문화동)
충청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민원 : <http://assem.cb21.net>의 「도민발언대」에 글쓰기
- 전화민원 : 043-220-5151
- 팩스민원 : 043-220-5159

하

- 방청인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 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43-220-5155



가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맞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땀방울을 흘리며 노력한 해였습니다.

도의원들도 꾸준한 의원연찬은 물론 의원 연구활동을 통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적극 발굴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제안 제시를 보다 충실히 하여 도정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인년에도 도민의 바람이 도정을 통해 희망의 꽃망울로 맺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함은 물론 충청북도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동반자로서의 의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적기에 각종 시책들이 골고루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뜻을 실현하는 도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有終 美’

(庚寅年)

사랑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행정소방위원회는 기축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향상과 행복한 충북건설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한 충북도정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유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충주유치 등의 쾌거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제8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뜻 깊은 해로서 개원 당시 도민여러분께 다짐했던 봉사정신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제4대 민선자치가 도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행정소방위원회가 되어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바람직하게 마무리하여 ‘有終의 美’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소방위원회는 155만 충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아름답고 행복한 충북”이라는 희망을 쌓아가도록 성심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칠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일마다 다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의 서거, 신종플루 대유행, 세종시 논란 등 하루하루가 숨 가쁘게 지나쳐 갔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기는 서민들의 어깨를 짓눌러 삶의 체온을 더욱 낮추었습니다.

지난 해 우리 위원회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관용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제한파로 하루하루가 고된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으로 모든 도민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공교육을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공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어깨를 활짝 펴고, 희망으로 가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켜 보면 2009년은 영광과 시련이 함께 한 시기였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12월 말 현재 167개 업체 21조 5,751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공신화와 백년 번영의 토대가 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12월 정부합동평가에서 경제살리기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품질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평가 11년 연속 최우수도, '09친환경농업분야 최우수도 등 전국 제일의 농업명품도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었던 세계경제 침체는 장기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힘겨운 날

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쌀 소비량 감소 및 재고량 증가로 인해 쌀값이 폭락하는 등 우리 농민들에게 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모두는 작년과 변함없이 올해도 더 힘껏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충북 건설에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농민들이 땀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농특산물을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여 충북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민의를 적극 수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만 충북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0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희망과 보람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는 지난 한 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역발전 전략사업 추진과 도민의 선진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립예술단 창단,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구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 유치는 도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는 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고, 행정복합도

시 수정론으로 도민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010대충청방문의 해로, 9월에는 제천에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되어,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우리 충북을 전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민 모두가 화합·단결하여 전국 최대규모의 투자유치 22조 시대를 이룩한 경제특별도의 저력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충북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는 민선4기 도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도민 모두가 잘살며 행복할 수 있도록 늘 처음처럼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로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충격으로 가파른 경기침체와 급격한 심리위축, 해외발 위기설 등의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 노력과 도민들의 위기극복 의지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기침체는 면했으나 내수여력이 취약하여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재침체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잘사는 충북건설을 위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발전이 지역 간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예산의 편중지원을 지양하여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충북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의 지원과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하

•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 등

하

• 벽지지역 36개 기관을 별표와 같이 구분함

하

• 자율형 사립고에 관한 사항 반영

하

• 건축위원회 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위원회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건축 관련 분쟁의 조정을 하도록 함 등.

하 2010

• 충북도립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 지하 1층, 지상 2층 2,500㎡ / 4,000백만원

하

• 임원 및 감사의 정수, 선출방법을 명기
• 임원 및 감사의 정수 등 조항 신설

하

• 지역균형발전시책 심의·자문 기관(제4조 제4항) 및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 대행 기관 명칭 변경 등.

하

•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 명시
•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 일부 조정 등

하 「2025

• 중앙정부의 국토 및 지역계획의 변화에 따른 청주광역시권 인구지표(시,군 인구지표 불임자료 참조) 설정 및 공간구조 구상 등

하

• 局단위 한시기구 설치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2010.12.31까지, 직제순은 문화관광환경국 다음으로 조정)

하

• 정원의 총수 조정 : 2,794명 ⇒ 2,792명 (감 2명)

하

• 임원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 지방공기업법과의 중복조항 삭제 및 조례명·조문 정비 등

하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일부를 청주시에 둠
•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둠

하

• 학교신설 : 5개교, 주소변경 : 3개교

하

•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원사업 용어 수정
• 용어 수정 : 전국체육대회 ⇒ 전국대회

하

•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미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하

• 농수산물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의 사업비 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하

• 농어업·농촌 진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의 수정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하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조정비용을 규정

하 2009

하

• 전투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함.

하 2010

하 2010

하 2010

하 2009~2013

하 2009~2013

하 2009

하 2009

가

2009



▲ 285 3 2009

285 ()

충청북도의회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제285회 정례회를 열어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현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개회 첫날 실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

정 연설을 청취하고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3일부터 9일간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7건, 행정소방위원회 57건, 교육사회위원회 80건, 산업경제위원회 84건, 건설문화위원회 76건 등 총 301건(시정·처리요구 124건, 건의 177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1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충청북도가 요구한 세입·세출예산액 일반회계 2조4,722억원 중 15억1,43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3,658억950만2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이 요구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조 5,504억3,296억원 중 51억 5,002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또한 12월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새해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인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과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며 200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였다.

286

()

● : 2010. 1. 22() ~ 2. 3()(13)

	1
1 22 (14:00)	1. 286 - : 2010. 1. 22. ~ 2. 3(13) 2. 2010 3.
1 23 2 2	● 2010 ● ●
2 3 11:00	● 2 1. 2.

	● 286 ● ●
	● 2010 ● ●
	● 2010 ● ●
	● 2010 ● ●
	● 2010 ● ●



5

9



< . > 1> 위에 임상하는 기 적같은 일을 해내 충북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으로써 강인한 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얻은 결과로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기에 우리 도민들은 아낌 없는 박수를 보냈고, 선수들은 그 동안의 땀과 눈물을 곱씹으며 승리의 환호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향상된 기량과 성적을 기대해야하는 우리는 장애 체육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단 한군데만이라도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전국 16개

지난 9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300여명의 충북 장애인 선수들이 전국 최고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3위에 임상하는 기적같은 일을 해내

시·도중 재정과 출전선수에서 타시도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며, 더욱이 장애인 체육시설의 경우는 타 시·도는 시·군·구 단위로 장애인 복지관 형태의 체육관 시설이 있으나, 우리 도내에는 청주에 '곰두리체육관' 한 곳만 있는 실정이고 이마저도 장애인재활체육센터로 실제 장애인 전문체육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장애인은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함은 물론 사회에 진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에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전용 체육관'의 건립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물론 충북도나 도교육청 등 각급 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장애체육인들의 절실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하루속히 이들이 바라는 작은 체육관하나라도 건립되기를 소망하면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복)는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상반기 회의운영계획안, 제286회 임시회 의사결정협의의 건, 200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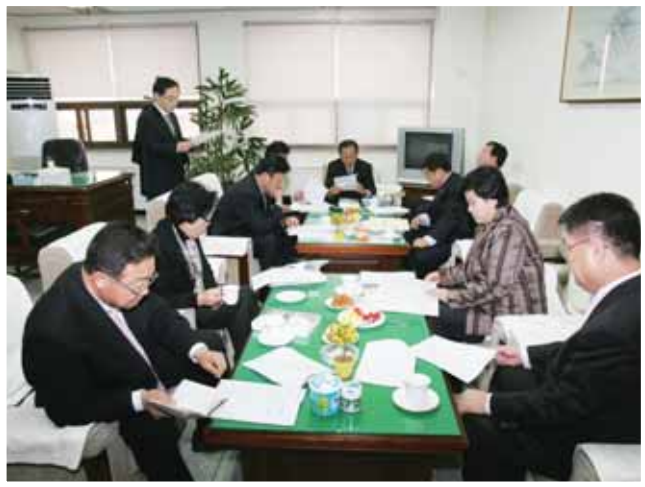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집행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되, 연중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과 당초 의정모니터 도입 취지에 맞도록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4건을 시정·요구 하였다.

또한 도의회 운영 및 사무처 소관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 협의하거나 간

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개선할 것과, 의정활동 홍보 시 현장 활동이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도의원들에 대하여 사무처에서는 새로운 홍보기법 마련으로 눈에 보이는 홍보활동과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 등 3건을 건의하였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8.33%가 증액된 74억 7천 8백만원이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2.06%가 감액된 68억 2천 3백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9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계획은 임시회 4회에 48일간을 운영하며, 제286회 임시회는 2010년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13일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로 협의하였다.



2009. 12. 15.

2009. 12. 1.
2010

2009. 11. 30.



2009. 11. 20. 285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연만흠)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열린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 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11월 23일에서 11월 30일까지(8일간) 정책관리실을 포함한 도 본청 5개 실·국·본부와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 출연법인인 충북개발연구원·(재)인재양성재단·(재)충북학사의 1년간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통 시정요구 사항으로 의회 요청자료에 대한 충실한 자료제출 등 2건을 요구하였으며, 실·국·본부 및 기관별로 총 55건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소방본부'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그리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11월 30일 충북도립대학 내 건물 신축 부지 현지확인을 거쳐 가결(제4차 행정소방위원회, 12.7)하였고, 12월 16일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였으나 안전심사 과정 중 타 시·도의 조례제정 후 운영현황과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와의 차이점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그 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다. 아울러, 행정소방위원회는 도정전반의 폭넓은 이해를 통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제특별도 건설과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2009년도 의정활동을 되새기며, 새해에도 도민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기로 다짐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임 현)는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충청북도과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청북도 소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지방의료원과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으로 도 교육청 본청 및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 등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우리도 신종플루 사망자가 전국 인구대비 높은 비율로 나타난 점에 대해 체계적인 대처방안 강구와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학력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모두 80건을 시정·개선 및 건의·촉구하였다.

2010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충청북도 소관 사업 중 사업계획 미흡과 형식적 예산운용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5건 1억 2,100만원과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으로 소모성, 낭비성 예산사업 7건 36억 1,8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에서는 신설되는 충청북도 교육정보원과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분원에 대한 근거마련과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2010학년도 신설학교 내역 및 자율형 사립고의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의결로 심사하였다.



2009. 12. 20.



2009. 12. 16.

2009

3



2009. 12. 4.

2010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갑)는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 농정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총 238건의 자료요구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27건의 시정처리 요구와 54건의 촉구·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201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5,200억원을 심사 의결하였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세종시 문제에 따른 충북의 기업유치 영향 및 대책, 합리적이고 적절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책정, 노·사·정간의 이해증진과 협조체계의 확립방안, 석면이 사용된 스테이트

양곡창고에 대한 대책,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 지원대책, 단체지원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 친환경 임산물의 청정 먹거리 육성방안, 신제품 종자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방안, 지역특화 시범사업의 농가소득 연계방안 등 다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9년 실시전 각종 사업을 점검하였다.

이어,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농한기 실시,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전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 확보 노력, 한우명품화 사업의 지역별 안배, 농가의 새로운 경영기업 도입으로 경쟁력 확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의 낙후지역 우선 지원 등을 지적하며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였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들은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 예산안 심사시 점심을 배달시켜먹는 모범적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이는 점심시간을 최대한 아껴 활용함으로써 오후에 예정된 의사일정에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이미 실시한 행정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이언구)는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현지 확인 등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한별천 소이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현장 등을 찾아 점검한 결과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정산시 지도감독 철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여론 수렴을 통한 결단 있는 사업추진, 하천편입미불용지 조기보상 대책, 충북예총과 민예총의 통합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강구, 열악한 장애인체육

시설의 확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 대책마련 등 총 76건(시정16, 촉구건의 60)의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시정·촉구토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인기방송 프로그램 유치 등 사업효과가 미약한 소모성 예산 편성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고, 향후 보조금 지원시 철저한 평가를 통한 예산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기관 등을 지원 육성·관리하기 위한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안' 등 총6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전투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09. 11. 20.

2009. 12. 4.

2010



2010

66



2009. 12. 22.

3

2009. 12. 9.

2010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환 의원)는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다.

이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낭비성 예산, 과다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을 조정하였다.

심사결과 2010년도 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전년도 보다 2천 432억원을 증액 요구한 2조 8천 380억원 중 44개 사업 15억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충청북도교육감

이 전년도 보다 546억원을 증액 요구한 1조 5천 504억원 중 10개 사업 5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가 기정예산보다 49억원을 감액 요구한 2조 9천 648억원과 충청북도교육감이 기정예산보다 406억원 증액 요구한 1조 7천 536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 없이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특히, 2010년도 예산안 중 충청북도 홍보예산에 대하여는 전액 승인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액에 대하여는 요구액 중 일부 감액하면서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학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1월 11일 발표된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9부2처2청) 이전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기업 등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를 세종시에 몰아주어 블랙홀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우리도 발전전략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

특히, 행정부처 이전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됨으로써 그간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 약속에 대한 믿음과 간절한 요구가 무산됨에 따라 155만 충북도민이 느끼는 허탈감이 더욱 커지고 이를 계기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의 위기가 뒤

따르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수정안에 의하면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고, 더욱이 정부의 파격적인 특혜 제공으로 세종시는 위치, 교통망, 인센티브, 과학벨트 거점지구지정, 대기업 입주 등 모든 측면에서 전국 최고의 투자환경을 구비하게 되어 인근 지역의 발전저해가 현실화되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관련하여 정부가 기업유치 확대를 위해 세종시 산업용지의 대폭적 확대와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할 경우 투자여건이 좋은 세종시에 동반이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

근 산업단지 지역인 우리 도는 중소기업 투자유치에도 상당한 차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청원군 지역의 세종시 편입 제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 우리 충청북도 의회에서 성명서 및 의견서 등 6회에 걸쳐 일관되게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일원을 세종시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청원군 지역을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또한, 세종시 블랙홀 현실화에 따른 충북지역 산업단지의 분양 전망

이 불투명해지며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역이 되고 오송·오찬이 기능지구로 될 경우 충북지역은 과학벨트의 들러리 역할만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깊은 절망과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155만 도민과 함께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을 때에는 탈당 등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다.

2010 1 12

!

전쟁과 분단 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룩한 발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그 기적의 뒷면에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단 이후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오직 국익이 최우선이라 믿으며 청주·충주전투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감수하며 지냈습니다.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생명의 위협을 참으며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투비행장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불안한 상황뿐이며, 주민들의 작은 요구마저도 귀기울여 주지 않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소외감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하여 보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미 軍 소음 문제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기에 그 명분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현재 소음 노출의 범위와 수위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물론, 그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넘어 재산상의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 국방부와 당시 건설교통부가 군용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합의했지만, 결국 예산상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도래하면 입법하겠노라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

다. 정부는 민간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소음 피해가 훨씬 심각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는 묵묵부답인 실정입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투비행장 이전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언제나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었습니다.

!

다행인 것은 주민들의 오랜 소원처럼 국방부 입법 예고안을 비롯하여, 軍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관련 의원발의 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은 어떤 법률안이 되었건 간에 피해 대책의 소음기준이 피해 현실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방지 대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소음피해 보상 재판도 정부와 국회에서 하루빨리 종결되어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등의

군 소음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민간항공기 소음 대책 이상의 수준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주민들의 눈물이 멈추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군소음방지법이 제정된 가까운 일본의 경우처럼 75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의 보상을 포함하여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軍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을 통해 국회(국방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되고, 국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지고, 국가안보와 주민생존권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은 거듭하여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9 12 15



2010



그래서 본도에서는 “2010년 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 유치 목표를 약 5,000만명(내국인 4,935만명, 외국인 65만명)으로 잡고 관광주제 ‘숨은 보석의 발견! 2010 충북관광’, 슬로건 ‘환영해 YOU! 충북방문. 사랑해 YOU! 청풍명월’을 내세워 충북의 이미지를 전환하고 방문객이 친근감을 갖도록 도민을 유도한다고 한다.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내륙에 위치한 농공업 복합도로써 국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구와 면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다음으로 작은 규모이다.

그러나 충북에는 수려한 천연자원과 문화유적이 많아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다.

예컨대, 충주댐과 대청댐, 속리산 국립공원과 수안보·문강·양성 온천,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등이 있어 교통이 쉽고 편리하다. 하지만 국내·외선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소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도민 중에는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관광을 통해 많은 외화를 소비하고 있으나 반대로 우리 충북이 맞이하는 해외 관광객 수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광지에는 볼거리(관광대상)와 즐길거리(위락시설), 먹거리(향토음식)와 살거리(토산품) 등 4대 요소가 구비되어야 관광객이 찾게 된다.

첫째로 볼거리(관광대상)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국내외 여행사를 통한 관광지(유적지, 문화재, 명소 등) 소개 책자 및 지도의 배포와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외의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로 즐길거리(위락시설)로는 대표적으로 온천과 향토 짬질방, 유원지의 위락시설 그리고 관광열차와 셔틀버스

운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보은 속리산 문장대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로 먹거리(향토음식)도 타지역과 차별화해야 한다. 예컨대 청주의 한정식, 영동의 울갱이국, 옥천의 생선국수, 제천의 한방백숙, 충주호의 비빔회와 생선매운탕 등 충북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로 살거리(토산품)가 있어야겠다. 예컨대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보은의 대추, 영동의 포도, 제천의 한약재, 증평의 인삼, 진천의 덕산막걸리, 충주의 사과, 음성·복숭아, 괴산의 고추, 단양 마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관광상품(토산품)의 판매를 위하여 도로변 가판 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 상품 진열이 불결하고 포장지 제대로 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는 기존의 시설물을 정비해 규격화되고 깔끔한 모습으로 바꾸는 동시에, 당국의 관리를 통한 불량상품의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충주국제공항과 국내외 항공사 공동의 “충북 방문의 해” 홍보활동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특히 청주-중국 간 노선의 증설이 필요하다.

첫째 :接客업소(호텔, 식당, 택시업체 등)에서는 친절과 적정가격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 충북의 민심을 자랑하고 관광객을 환영하는 뜻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관광버스에 손흔들기 운동을 전개한다.

셋째 : 충북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를 정비하고 도로변에 화단을 설치하여 꽃길을 만든다.

넷째 : 택시 기사의 복장을 규격화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을 위하여 택시기사의 간단한 생활영어 연수가 필요하다.

다섯째 : 먼저 도민에게 “2010년 충청 방문의 해”를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안내요원이 되어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성공적인 “2010년 충청방문의 해” 행사를 통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庚寅年,



그러나 지방의회의 출범 20년, 지방자치 16년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지만,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하기까지는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축적되어 왔다. 지방자치가 시작되지만 하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민주정치가 발전되어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20년이 된 지금의 현실은 지방자치 출범 당시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해 도입된 정당공천제는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를 만들었으며,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 보다는 정당에 구속되어 주민을 위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8대 충청북도 의회가 출범한지도 3년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6개월만 남겨두고 있다. 제8대 충청북도 의회는 전대 의회와는 다르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유급제 실시가 이루어지면서 의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이는 제7대 의회에서는 4년간 1인당 평균 1.3건의 의원조례발의건수를 기록한데 비해 제8대 의회에서는 3년 6개월동안 1인당 평균 4.1건의 의원조례발의건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충북 실현’을 목표로 167개 기업 21조 5,751억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유치,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충주유치 등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북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앞세운 세종시 수정안, 혁신도시의 정상추진 등 산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제 6개월여 남은 제8대 의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有終의 美”라 생각한다. 자칫 선거에 휩싸여 6개월간의 의정활동이 선거활동으로 변해버리기 쉽다. 물론 선출직인 지방의원으로서 선거운동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으로서 마지막 남은 6개월을 도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때 이 또한 멋진 선거운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지방의회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지방의회가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토대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숙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8대 충북도의회가 되기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어 제9대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로서 포효하길 바라며 지방의회를 돌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충실히 실현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를 선도해 이끌어가기 기대했다.

2010

(1 ~ 6 / 4 , 48)

1 (286)	1.22() ~ 2.3() (13)	• 2010 •	
2			(2. 13-15)
3 (287)	3.10() ~ 3.23() (14)	• • 4	
4 (288)	4.14() ~ 4.23() (10)	• • 2009	
5			
6 (289)	6. 15() ~ 6.25() (11)	• 1 (,) • •	4 (6.2)



가

[]

가 82 가
2001 5 31 가

가

가

?

[] 귀하의 아버지처럼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실종선고를 함으로

써 사망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실종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실종선고는 보통실종(생사불명 5년)과 특별실종(전지(戰地)에 임(臨)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戰爭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불명이 있는바, 귀하의 아버지는 위와 같은 특별실종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사불명상태가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귀하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다음날인 200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5년이 경과한 2006년 6월 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는 부재자인 귀하의 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아버지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울의 경우는 서울가정법원, 그 외의 지역은 각 지방법원 및 지원)에 실종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6월 이상의 공시 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귀하는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면 2006년 6월 1일자 로 귀하의 아버지의 단독상속권자가 되어 위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직장인의 공공의 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우리 몸에 소화기능을 떨어뜨려 만성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고 평소 잘 되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두통을 유발한다. 특히 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은 경추가 뒤 틀리기 쉬워 머리 쪽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편두통을 유발하기 쉽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생명을 위협할만한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를 알리는 위험 신호로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직장인에 많이 일어나는 편두통에 대한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편두통은 흔한 두통으로 증상은 한쪽 머리에 맥박이 뛰는 듯 한 육신거리는 심한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짧게는 수시간에서 길게는 2~3일까지 지속되며, 메스꺼움, 구토 등

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사람에 따라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눈앞에 번쩍거리는 빛이 나타나 시야를 가리는 증상이 선행될 수 있다.

편두통의 경우,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진통제를 남용하는 경우도 발생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편두통의 치료는 두통이 있을 때의 급성기 치료와 장기적인 치료인 예방적 치료가 있다. 급성기 치료제로는 환자의 두통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소염진통제 및 편두통 전문치료제인 트립탄 계열의 약을 사용한다. 이런 급성기 치료제가 1주일에 3일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방적 치료제를 사용함으로써 두통의 빈도 및 강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

>

2010 1/4

				()	()	
		3.10	1	1	40	
		3.19	1	1	40	
		1.20 ~ 1.21	2	1	40	
		1.27 ~ 1.28	2	1	40	"
		2. 3 ~ 2. 4	2	1	40	"
		2. 9 ~ 2.10	2	1	40	"
		2.23 ~ 2.24	2	1	40	"
		2.26	1	1	250	
	가,	3. 3	1	1	40	
		3. 9	1	1	40	
		3.16 ~ 3.17	2	1	40	
		3.23	1	1	40	
	가	3.26	1	1	40	
		1.25 ~ 2. 5	2	1	40	
		2.11 / 8.30	1	2	60	
	"	2.18 ~ 2.19	2	1	30	
	"	2.25/3.18/3.24	1	3	90	
			2	2	40	
		3.11 ~ 3.12	2	1	30	"

吓

- 도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충북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11)
- 도민행복교육 : 043)220-5282~5285
- 영농기술·농업기계교육 : 043)220-5292~5297

- 홈페이지 : <http://loti.cb21.net>
- FAX : 043)220-5289

吓

- 주민등록주소지의 시·군청(또는 읍·면·동사무소)으로 신청 → 교육신청자명단(해당 시·군취합) →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로 통보 → 입교확정

 365

국세청은 은행등 금융회사 영업시간
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불편해소
를 위해 10월17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도 인터넷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해졌고 납부가능시간도 7:00 ~ 22: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모든 카드가 가능하고 계좌이체는 우선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한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은행, 우체국, 신한, 상호저축은행등 15개 금융회사에서만 365일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

공휴일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홈택스 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에 로그인 해 납세자정보, 세무, 납부금액 등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를 조회 또는 입력하고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방식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에는 인터넷 사용인

원이 많지 않아 접속지연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 가

가

→ → →

< - >

談客邊窓

불념구악 不念舊惡과
자구다복 自求多福

목은해를 보내는 마당에 흔히 입에 올리는 말은 다사다난(多事多難)이지만, 그 속에 담긴 사연들은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겪은 신산고초를 말하는 이도 있을 테고 직장이나 사회, 온 나라가 함께 겪은 풍파를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멀리 보내버리고 싶기 때문에 송구(送舊)라 했을 것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이라면 굳이 털고 잊고 보낼 필요 없이 기억 속에나마 오래 간직하려 할 것이 아닌가?

기왕불구(既往不咎: 맹자, 公孫丑上篇)
라는 말이 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돌이켜
탓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설혹 마음에 앙
금이 남아 있더라도 겉으로 드러내거나
새삼스럽게 시비를 가려 별주거나 책망
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마음까지 깨끗이
비운 처지는 아니다. 비슷한 말로 지나간

잘못을 마음에 조차 품지 않는다는 불념구악(不念舊惡: 논어, 公治長篇)이 있다. 이는 전자보다 높은 수양을 통해 초연한 심성을 지닌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나 열쾌감, 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비록 곁으로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지니고 있기가 십상인데, 후자는 마음조차 깨끗이 비우고 그야말로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은 청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이니 수양 없는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목은해를 보내는 마당에, 개인 혹은 이웃과 사회, 나라와의 관계에서 서운하고 야속했던 일, 원망스럽거나 분개했던 일들은 기왕불구로 하거나, 나아가 불념구악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 것이 자신에게나 남에게는 물론 나라 전체에도 득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

영신(迎新), 새해를 맞는 마음은 누구나 가슴 벅차고 기대와 희망이 넘치고 각오를 새삼스럽게 다지게 된다. 그 마음속에 묵은해의 찌꺼기를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은 새해의 복이 들어왔을 자리를 좁히는 것이니, 이는 곧 축복(祝福) 아닌 축복(逐福)이 되는 셈이다.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가득 담으려면

목어 썩은 물을 말끔히 비워내야 하지 않
는가? 마음이 곧 향아리요, 새로 담을 물
이 바로 희망이요 기대요 복(福)이니 어
찌 그러하지 않은가?

상투적인 용어지만, 2009년 역시 다시 다난이었다. 기억해 둘 기쁜 일도 많았지만, 가닥이 잡히지 않는 일들이 옹고집 쥘 쥘 끼고, 위정자들은 물론 온 국민의 머리가 어지러운 지경이었다. 북핵 6자회담, 4대강 사업, 세종시, 혁신도시, 미디어법, 노동관계법, 철도노조파업, 지방행정체제개편, 선거구개편, 개헌, 아프카니스탄 파병, 신종플루, 외국어고 전환.... 모두가 풀어야하고 매듭을 지어야 할 것들인데 풀지도 못하고 매듭도 짓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되었다. 심지어는 법적절차나 행정절차가 끝난 문제도 양금이 남아 시시비비하거나 이견분분이다.

말은 좋아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라지만, 차기 정권쟁취와 유권자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이나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린 일부 국민들이 마음을 비우지 못
한 탓이다. 그늘을 드리우지 않고 설 나무
가 어디 있겠나.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고이지도 않으면서 마냥 한가롭게만 흐
르는 물이 어디 있을까? 아침에 그늘진

곳은 저녁에 별들고 절벽에서 떨어졌거나
고였던 돌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평지
에서 잔잔히 흐를 날이 오게 마련이다. 그
늘이 싫어 나무를 베어버리면, 폭포가 싫
어 물이 흐르기를 멈춘다면, 정제와 중단
에 부딪칠 것이고 그 땅은 마침내 황폐화
될 것이다. 발전과 향상, 낙원 건설은 기
대만일 뿐이다.

고통과 혼란의 터널을 지나려면 어둠을 참는 인고(忍苦)의 시간을 견디거나, 스스로 불을 밝혀 어둠을 쫓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난날의 다사다난은 터널 통과 과정이라 치자. 새해에는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나기 위해 함께 인고하고 지혜의 빛을 모아 어둠을 밝히자. 그러자면 기왕불구하거나 불념구악으로 마음을 비우자. 향아리의 썩은 물을 말끔히 버리자.

자구다복(自求多福: 시경, 大雅 文王篇)이었다. 큰 복은 하늘이 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구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새해, 경인년(庚寅年) 호랑이해에는 자구다복을 화두로 삼자. 그래서 영물(靈物)인 호랑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대범하게 발걸음은 힘차게, 터널을 지나 희망찬 빛의 세계로 나가자. 우리 스스로 복을 구하자.

< - 가>